

순창, 수의계약 A건설 최대 59건 체결

D면은 B건설에 16건... 단 한 건 체결 못한 업체도 있어... 충주·이천은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

순창군은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단 한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특정업체 A건설사에 수의계약 최대 59건을 체결해 반축을 사고 있다.

27일 순창군에 따르면 수의계약 공사부분 500만원 이상의 체결이 1447건으로 총 210억 5468만 7590원이다. 본청을 제외한 계약관서는 1개읍, 10개면, 4개 사업소 1개 일이다. 그 중 동계면은 139건으로 16억 4,691

만 7,000원으로 최고금액이었으며, 유등면은 63건으로 8억 8,494만 5,710원으로 최저금액이었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설비, 설치공사 등 다양한 면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중 A건설이 59건에 8억 1,186만 4,920원, D면의 경우 B건설에 16건 1억 8,567만 8,000원이 편중되어 체결됐다.

반면에 순창군에 건설면허가 등록되

어 있음에도 단 한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도 있었다.

순창군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수의계약 부분의 부정적인 여론은 항상 야기되고 있었으며 건설업체 간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에 따른 이유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순창군 관계자는 "각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에 조금이나마 보탬

이 되고자 수의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관행처럼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와 이천시 등의 경우 2017년부터 전문건설업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총 계약 금액을 3억 원으로 제한해 다수업체의 계약 참여를 넓히고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해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빙상경기장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어린이·청소년 무료 입장

전주시설공단은 지구촌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끝났지만 동계스포츠의 즐거움과 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한빙상경기연맹과 함께 28일 전주 빙상경기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일일 무료 입장을 진행, 플루트피겨 공연(윤수연), 무료 감상 및 팬사인회(토리노 올림픽

픽 금메달 리스트 전다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전주시설공단 전성환 이사장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 많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동계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얻기 바라며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가 있는 날이란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 전국 주요 문화 시설을 할인,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서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 1주년

시간 단축·배차 간격 감소

버스카드 이용 증가·무료 환승 건수 증가 등도

전주시는 27일 브리핑룸에서 전주시내버스 노선이 시행된 지 1주년을 맞아 가운데 노선 개편으로 인해 시민들의 버스 통행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버스카드 이용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완주군과 뜻을 모아 전주시민들의 실제 교통 수요와 이동 패턴에 맞춰 27개 노선을 신설하고 36개 노선 조정 30개 노선을 폐지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했다.

전주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특징은 평균 배차 간격이 56.3분에서 51.7분으로 4.6분 감소, 신설 노선으로 인해 특정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버스 통행 시간이 단축됐다.

또 버스 1대당 하루 평균 운행 거리도 기존 281.1km에서 268.8km로 12.3km 줄어들면서 버스기사의 근무 여건이 나아졌다.

또한 노선 개편 시행 이후 하루 평균 교통카드 이용 건수도 지난 2016년 11만 6,516건에서 지난해 11만 7,853건으로 1.15% 같은 기간 무료 환승 건수도 하루 평균 1만 5,124건에서 1만 5,475건으로 2.32% 증가했다. 이는 전주시가 노선 개편 시행과 함께 무료 환승 시간도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10분 연장하면서 하루 평균 842명이 이러한 혜택을 보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부분 노선 조정을 시행, 버스를 증차하는 등 버스타기 편리한 환경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28일 시행되는 시내버스 부분 노선 개편을 통해 버스를 19대 증차하고 △하나로클럽-만성지구-전북혁신도시-전주대학교-풍남중-평화동 종점을 연결하는 74번 노선 △송천동 종점-에코시티-동부대로-전주역-모래내시장-객사-예수병원-전주대를 잇는 108번 노선 △평화동-예수병원-남부시장-서부시장-전주대-이서-애룡로로 연결되는 200번 노선 등 3개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도시개발지구인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는 각각 하루에 총 6개 노선 36대(하루 371회)와 4개 노선 30대(하루 284회)의 시내버스가 운행돼 버스타기 편리해지고 전주완주 구간전체 도입 지역인 이서면 주민들의 환승 불편 민원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지난해 노선 개편은 많은 성과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분 노선 조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28일 부분 노선 개편을 통해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의 입주민들에게 불편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설명회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37개 과정 불학기 교육훈련생 모집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27일 센터 4층 강당에서 취업희망 여성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불학기 직업교육훈련 과정 교육 설명회를 했다.

센터는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는 이번 불학기 교육 과정으로 총 37개를 마련, 취업희망 여성 610여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 교육 과정으로는 △기초한글&엑셀마스터 △프레지&파워포인트 △캘리그래피&3D △베이비시터 △베이비마사지 △중식조리사실기반 △미발판의진수 △한복입문과정 △아동요리지도사1급 △정리수납전문가2급 △우리쌀요리놀이지도사3급 △드론운용합지도사 등 '직업·자격증 취득 과정' 13개 운영된다.

사회 문화 과정으로 △원어민 생활영어 △떡케이크 △시리즈퍼커니 도 시작 △감성 대화 코칭 △천연 염색 체험 등 5개 과정이 운영, △우리쌀 요리놀이 지도사 △공예 체험 특강(압화, 가죽공예) △진로코칭 지도사 △생명 살림 EM특강 등 취업희망 여성들을 위한 무료 특강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센터는 내일배움카드제 교육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3월, 5월) △리폼디자인(주·야간) △의복구성 실무양성 △요양보호

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반 △직업상담사2급 △정리 수납 전문가 △미발판 조리 향상 등 7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제 교육은 전주요양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전체 수강료의 80%를 지원하는 '전주시 완산·덕진구청 교육비 지원 과정'도 진행된다. 완산구청의 경우 과학 탐구·진로 코칭 지도사, 창의로봇 지도사, 가족공예 지도사3급 등 3개 과정이 운영, 덕진구청은 과학 탐구·진로 코칭 지도사, 정리 수납 전문가1급 과정 등 2개 과정이 운영된다.

이 외에도 기업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정으로 호텔객실관리사(4.23 개강, 20명)와 탄소소재제조 생산인력양성(4.30 개강/ 20명) 교육도 각각 3개월간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대표전화(063-232-2346~7)를 통해 전화 접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jwvman.or.kr) 접수 또는 방문 접수(평화동 BYC 3층)하면 된다. 단, 구청 지원 과정의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채규남 기자

빛 독촉하다 형 부부 흥기로 찌른 70대

2000만원 빛 독촉하다 형 부부를 흥기로 찌르고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7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정모(77)씨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3시에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형 A(78)씨와 형수 B(75)씨를 흥기로 수차례 찌르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정씨와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화재로 인해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조카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조카 대신 형 부부에게 갚을 것을 요구했고 갚을 여력이 없었던 형 부부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온 A씨의 사위가 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가 집안에 쓰러져 있던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조카에게 빌려준 돈을 형 부부에게 갚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 같다"며 "정씨 상태가 좋지 않아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기자

주광덕 의원 친형 구리서 숨진 채 발견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친형이 자택에서 흥기에 찢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모(62)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주씨의 머리 뒷부분에서는 구타 흔적이, 등에는 흥기에 찢린 흔적이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화분과 흥기가 발견됐다.

숨진 주씨를 처음 발견한 막내 동생은 "오늘 일을 나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 집에 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씨가 누군가로부터 살해당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로 보이는 화분과 흥기가 발견됐다.

숨진 주씨를 처음 발견한 막내 동생은 "오늘 일을 나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 집에 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씨가 누군가로부터 살해당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익산시 예식장 철거 공사 중 가림막 무너져

27일 오후 1시50분경 익산시 부송동의 한 웨딩홀 철거 공사 중 설치한 철골 가림막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차량 2대가 파손됐다.

또한 구조물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웨딩홀 앞 편도 2개 차선과 인도를 1

시간 넘게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철거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가림막을 때려 구조물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이 수습될 때까지 주변을 통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